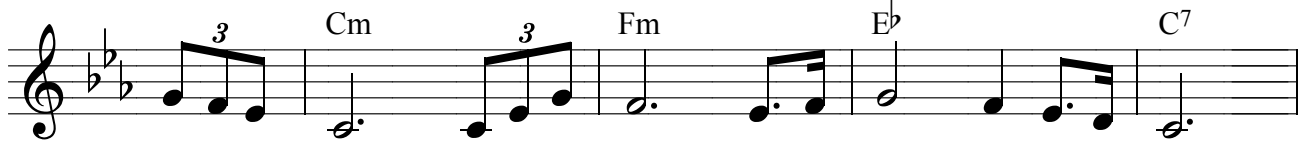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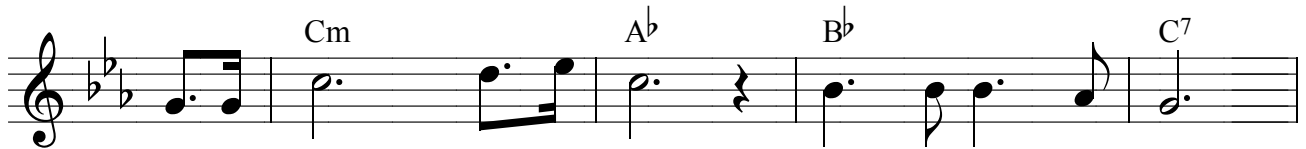
채인순 작사
김동국 작사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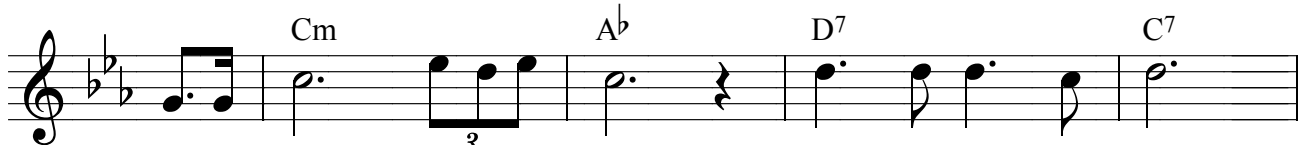
1. 동남풍 이 불어와 도 무섭 지 가 않 아 요
2. 폭풍우 가 몰아쳐 도 무섭 지 가 않 아 요
3. 홍해수 가 막는대 도 무섭 지 가 않 아 요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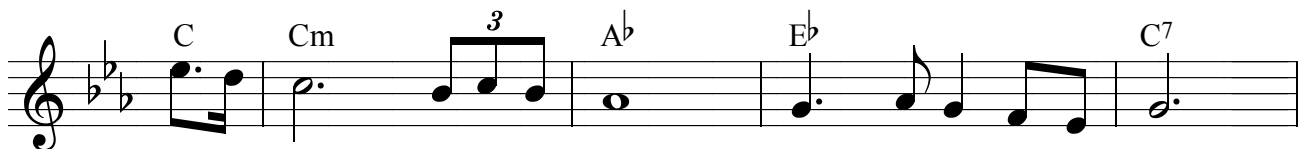
서북풍 이 불어와 도 두렵 지 가 않 아 요
거센파 도 밀려와 도 두렵 지 가 않 아 요
요단강 이 막 - 아 도 두렵 지 가 않 아 요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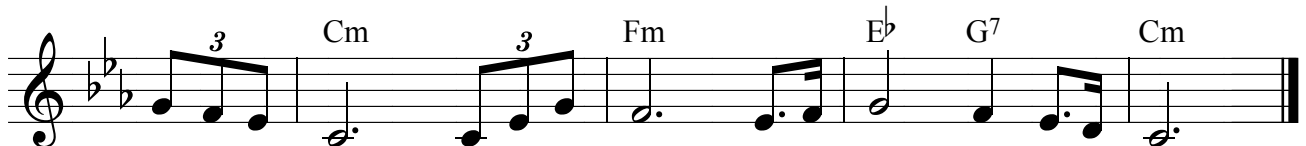
바람 을 꾸짖 어 잠잠케 하 신
파도 를 명하여 잠잠케 하 신
지팡이 내밀어 건너게 하 신



예수님 모셨으니 염려없어요



능력의 나의 주님 함께 계시오니



모진바람 불어와 도 찬양 하며 살래요
험한파도 밀려와 도 찬양 하며 살래요
장애물이 있다해도 찬양 하며 살래요